/지역 단신/

日 운젠시-구례군 교류방안 논의

일본 나가사키 운젠시 오쿠무라 신타로우 시장이 최근 구례군을 방문해 서기동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구례군 국제교류업무 관계자가 운젠시를 방문, 가네코 도모미쯔 부시장과 만남을 가진 게 계기가 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서 군수는 "친환경 농업과 문화, 관광분야에서 민간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해 갈 것"을 제안했으며 오쿠무라 시장은 "행정 뿐만 아니라 의회나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교류를 갖자"고 답했다. 인구 5만의 운젠시는 해안선을 끼고 있고 '아마쿠사'라는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과 오바마 온천 등이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구례군과 지역여건이 비슷하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21세기 담양포럼' 25일 개최

담양군은 오는 25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라는 주제로 조동춘 밝은가정협의회 회장을 초청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최한다.

담양군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를 초청, 매달 두차례에 걸쳐 '21세기 담양포럼'을 열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장성 삼계 하수처리장 내달 착공

장성군이 친환경 신도시 건설을 위해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한다.

삼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다음달 착공, 200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2천918평의 처리장 부지에 하루 2천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4개소, 차집관로 10.7Km가 설치된다.

처리장 인근에는 친환경 공간개념을 도입해 주민들의 산책로 및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내년 시행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 지역별 특성 무시"

전남 6개시·군, 인원 감축 반발

내년부터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남에서만 여수를 비롯 6개 시·군에 이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섬까지 포함하고 있는 여수시의 공무원 정원은 13개국과 사업소 등에서 모두 1천786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예시한 내년도 총 인건비는 9백3억 원에 불과,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수를 현 정원에서 32명을 줄여야 한다.

나주시의 경우에도 정부가 예시한 내년도 총 인건비는 517억원으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공무원 정원 992명보다 18명을 줄여야 하며, 목포시 역시 9명이 감소되어야 한다.

군 단위에서는 신안군 13명, 무안군 7명, 영암군 1명 등 전남에서는 6개 시·군에서 모두 80명의 공무원 정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농어촌이거나 섬이 많다는 지역별 특성이나 기업도시조성 업무 신규추진 등 행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를 경우 일부 시·군의 경우 사실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농촌군이거나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다는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 총액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직자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인건비가 총액제로 바뀌면서 공무원 정원이 많아지거나(과원) 상위직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생태공원서 농촌 총각-도시 여성 만남

농어촌 총각과 도시 여성을 연결해 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 행사가 전라남도 새마을회(회장 박형길) 주관으로 지난 21일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사진〉

'행복을 여는 녹색체험'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평군수, 새마을회 관계자, 미혼 남성과 여성 44쌍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산과 울산에서 곡성, 장성으로 시집와 모범가정을 이룬 배영숙, 김향숙씨가 결혼생활과 정착과정 등을 소개해 참가 여성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명품 청자 공개 경매

강진군은 지난 19일 화목가마에서 직접 구운 청자를 공개경매를 통해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정통고려청자 요출 경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청자 가운데 '칠보투각향로'가 최고 가격인 205만원에 경매 됐다.

대종교 나철 선생 보성서 90주기 추모제

대종교 창시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홍암(弘巖) 나철(羅喆)선생의 서거 90주기 추모제가 지난 20일 보성군 벌교읍 사무소 광장에서 열렸다.

이 지역 민간단체인 '벌교 사랑회'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정종해 보성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홍암선생의 독립정신과 애국혼을 기렸다.

추모제에 이어 도립국악단과 보성문화원 모듬북사물단 공연,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난하는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지난 1863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서 태어난 홍암선생은 1909년 대종교를 창시하고 1916년 만주와 황해도 인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중 사망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골프장 예정지 분묘이전 보상 '횡포'

동광레저, 이장비 턱없이 낮고 연고 분묘 멋대로 훼손

'무연고 분묘 화장 원칙' 안지키고 지상 방치 '물의'

동광레저가 화순읍 서태리 일대에 27홀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분묘 이장 비용을 턱없이 낮게 책정한데다 연고 분묘를 임의로 훼손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동광레저는 서태리 일대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 있는 1천여기의 묘지 이장비용을 건교부 고시 가격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 42조'는 '분묘 이전비용을 제외한 이장보상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광레저 측은 이장 비용으로 150만원을 지급했을뿐 보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무연고 분묘는 69만원에 처리토록 되어 있는 건교부 고시를 무시하고 1기당 27만5천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가격에 도급을 줘 375기의 무연고 유골들이 화장처리도 하지 않은 채 김제의 종교시설 납골당에 기당 6, 7만원에 안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연고 분묘는 화장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유골 그대로 지상에서 10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비 위생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화순군의 경우 올해 생물학 단지를 조성하면서 분묘보상비로 1기당 263만원을 지급했으며 무연 분묘도 69만원에 도급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광레저는 또 연고가 있는 분묘 4기를 무단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박모(70)씨는 "지난 5월 조상들의 산소가 없어져 공사현장에 문의했으나 회사측이 수개월간 미루다가 지난 15일에야 분묘 이장비와 유골을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읍 서태리 일대 27홀 골프장과 콘도시설 건설공사는 지난 4월 착수됐으며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소출력 '나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오픈 스튜디오 생중계 '호응'

영산강 문화축제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지역 축제 행사장에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 주요 행사를 생중계 방송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FM 96.1Mhz)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주에서 개최된 '2006년 영산강문화축제'기간동안 행사장에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요 행사를 직접 생중계했다.

특히 생중계 도중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안내 방송을 비롯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때문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이번 '2006년 영산강문화축제'에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등장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으며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특성을 살리는 등 기존 방송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나주방송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에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며 "관광객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라디오의 전파를 통해 방송으로 전달 돼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을 볼때 소출력 방송의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지난 2004년 방송위원회가 나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